

## Vannoy 박사 , Samuels, 강의 4

© 2011, Robert Vannoy 및 Ted Hildebrandt

“이제 우리는 사무엘 상하에서 왕권과 언약의 주제에 대한 고려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즉, 다윗이 실행한 왕권은 불완전하지만 언약적 왕의 이상을 참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통치를 설명합니다. 사무엘 상이 끝날 무렵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처음에 유다 지파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고, 그는 잠시 동안 남부 도시 헤브론에서 통치했습니다(사무엘 하 2:1-7). 그런 다음 사울의 아들 이스 보셋이 북쪽 지파에서 아버지의 왕조를 계승하지 못한 후, 그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에 의해 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윗이 마침내 온 나라에 대한 통치를 시작한 것은 사무엘 하 5장입니다. 사무엘 하 5장 3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서 다윗 왕에게 왔을 때, 왕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헤브론을 불태우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었다.”

여부스 사람들이 거주하는 작지만 요새화된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 산이 될 곳의 남동쪽 산등성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시온은 새로운 정부 소재지에 이상적인 위치였습니다. 그것은 중앙에 위치하고 다윗의 지파인 유다나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으며, 두 지파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장소는 삼면이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고 요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거의 난공불락의 국가 수도를 제공했습니다. 다윗의 이 업적이 단 몇 구절(5장 6-10절)에 설명되어 있지만, 그 중요성을 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수도인 시온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리고 실제로는 이후의 세계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 5장은 다윗의 통치를 모든 찬란함으로 묘사하는 일련의 서사로 독자를 인도하는 동시에 그 속의 음모와 복잡성도 드러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5장에서 책의 마지막인 24장까지 그 서사를 발견합니다. 사무엘하 6장과 7장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전체의 핵심에 있는 문제를 다룹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왕권과 언약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입니다. 또한 주목했듯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상 8장에서 주변 민족들과 같은 왕을 구했을 때, 그들은 언약을 부인했고, 본질적으로 그들의 왕이신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주님으로부터 백성에게 왕을 주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는 야훼에 대한 충성을 간증하는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군주제를 수립하고 동시에 인간의 왕권을 신권 정치 구조에 통합하여 야훼를 이스라엘의 신성한 왕으로 계속 인정하는 언약의 간증이라는 배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특히 사무엘상 11:14~12:25와 관련하여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점부터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그의 백성에 대한 야훼의 통치의 대리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주변 국가들의 왕들처럼 자율적인 왕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의 요구 사항과 선지자들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실망스러운 사람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는 야훼를 이스라엘의 참된 주권자로 계속 인정하는 방식으로 왕실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비난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님께서 사울을 거부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좌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으므로, 사무엘하 6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왕권과 언약(이 책의 주요 주제)이라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새로 얻은 수도인 예루살렘(시온)으로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강의의 시작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데에는 다윗이 야훼 가 이스라엘의 신성한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에 대해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지침을 주셨을 때, 언약궤가 가장 먼저 설명된 구성 요소였습니다. 언약궤는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덮은 직사각형 상자였으며 크기는 약 4피트 x 2.5피트 x 2.5피트였습니다. 그것은 지성소의 휘장 뒤에 두어야 했고,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일년에 한 번만 그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언약궤 위의 공간, 그룹들 사이, 그 덮개의 양쪽 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초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22에서 모세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 속죄 덮개 위에서, 언약궤 위에 떠 있는 금 그룹들 사이에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사무엘상 4:4과 사무엘하 6:2에서 언약궤는 야훼가 보이지 않아 계신 보좌로 언급됩니다. 비슷한 은유를 사용하여 역대상 28:2과 시편 132:7은 언약궤를 야훼 보좌의 발판으로 언급합니다. 모세는 십계명의 사본을 언약궤 안에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언약궤의 상징적 기능 중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는 용기와 보좌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율법 사본이 담긴 상자였고, 그 위에 보이지 않게 왕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야훼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신성한 왕권을 보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시온으로 가져옴으로써 야훼가 그들의 위대한 왕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시온으로 가져온 후, 이 도시는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에서 예상한 대로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하게 하신 곳으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구약성경의 많은 본문에서 시온을 다윗의 왕도이자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성한 왕 야훼가 온 땅을 통치하신 곳으로도 언급합니다. 시편 9:11 -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시편 76:2 -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요, 시온산은 그의 거처이다." 시편 99:2 - "주께서 예루살렘에 위엄 있게 앉아 계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이 계시다." 시편 132:13 - "주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처럼 원하셨음이로다 ." 이사야 8:18 - "우리는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님께로부터 온 이스라엘의 표적과 상징입니다." 예레미야 8:19 -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라. 온 땅에서 들린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셨는가?' 백성이 묻기를, '우리 왕이 더 이상 거기에 없나?'" 성경적 가르침에 따르면,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신성한 왕인 야훼의 거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까지 인간 역사의 초점이 될 것이며, 구속 역사의 전개에서 예루살렘의 역할에 대해 말하는 많은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은 매우 눈에 띄고 확실한 방식으로 나라에 대한 왕의 통치를 확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사무엘하 7장에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히 지속될 왕조를 약속하심으로써 보답하시고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사실 사무엘상하 전체 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유다까지 뻗어 있는 약속된 씨의 혈통이 이제 좁아지고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3:15에서 언급된, 궁극적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을 여자의 씨, 즉 여자의 씨가 다윗의 왕족에서 나올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다가올 위대한 메시아 왕의 조상이 될 사람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다윗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은 사무엘하 7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시편 89편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 전부를 읽지 않고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씨를 영원히 세우고 네 왕위를 대대로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내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을 부었노라. 내 손이 그를 불들고 내 팔이 그를 힘 있게 하리라. 내가 그에게 영원히 내 사랑을 베풀고 그와 맺은 내 언약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의 씨를 영원히 세우고 그의 왕위를 하늘이 있는 한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아들들이 내 법을 버리고 내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범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를,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고 내 신실함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한 말을 바꾸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거룩함으로 맹세하노라. 나는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혈통이 영원히 계속되고 그의 왕위가 해와 같이 내 앞에 있고 하늘의 충실한 증인인 달과 같이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마태복음 1:1).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녀의 아들이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에 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누가복음 1:32, 33).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길가에 앉아 있는 두 눈먼 사람에게 다윗의 아들로 불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여.”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밝은 아침별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성경적 묘사에서 그의 업적이나 지도자로서의 자질보다는 그를 통해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이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약점은 분명하며, 가려지거나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가장 잘 알려진, 그러나 유일한 실패는 맷세바와의 간통과 그녀의 남편 우리아의 살인에 연루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1:2-12:25에 묘사된 이 사건에서 다윗은 갑자기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백성에게서 빼앗는 왕처럼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있는 그에 대한 묘사를 기억하십시오. 갑자기 다윗은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복종하는 왕처럼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법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다윗은 참된 언약의 왕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11장의 마지막 구절인 “주께서 다윗이 행한 일을 불쾌히 여기셨다”는 말은 12장의 첫 번째 줄인 “그래서 주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게 하셨다”로 바로 이어집니다. “주께서 다윗이 행한 일을 불쾌히 여기셨다”와 “주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게 하셨다”는 두 구절의 병치는 이야기가 11장에서 발견되는 다윗의 죄에 대한 설명에서 12장에서 발견되는 다윗을 책임지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설명으로 옮겨가는 핵심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그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7장)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하 12장에서 그는 다윗에게 근본적으로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그의 죄의 엄청난 규모를 직면시키고, 그의 죄가 그의 가족과 궁정의 삶에 가져올 심각한 결과를 그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나단의 책망의 핵심에서 그는 7, 8절에 묘사된 다윗에 대한

주님의 은혜로운 행위와 대조를 이룹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고,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주었고, 훨씬 더 주었을 것이다” – 이것은 그의 은혜로운 행위와 12:9에서 다윗이 언약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의 대조입니다. “너는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다윗의 죄는 살인과 다른 남자의 아내를 훔친 것으로 지정됩니다(9절하). 이러한 죄 때문에 다윗은 세 가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첫째, 칼이 우리아에게 가했던 것처럼 그의 가족을 괴롭힐 것입니다(9, 10절). 둘째, 반란이 그의 집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11절하). 셋째, 그의 아내들은 다른 남자에 의해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할 것입니다. 마치 그가 우리아를 비밀리에 굴욕시켰던 것처럼 말입니다(11절하, 12절).

사무엘 하권과 열왕기 상권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어지는 서사에는 이러한 처벌의 성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단의 기소를 듣고 다윗은 즉시 회개와 통회의 말로 응답했습니다. 그는 13절에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것을 살펴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히브리어 본문에서 단 두 단어만 말했던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히브리어 본문에서 단 두 단어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매우 짧은 진술은 전체 서사 단위의 역동성의 핵심을 구현합니다. 아리엘 사이먼이 지적했듯이, “나단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와 다윗의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대답은 본질적인 간결함에서 그 힘을 끌어냅니다.” 다윗의 고백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이며,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사무엘이 그를 마주했을 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죄악스러운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한 사울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적인 행동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맡았습니다. 시편 32:3과 4에서 그의 고백하지 않은 죄가 그의 영혼에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내가 잠잠할 때에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해졌다”이다.

주의 손이 낮과 밤으로 나를 무겁게 누르셨나이다. 여름 더위와 같이 내 힘이 빠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죄가 주님을 거스른 것이라는 그의 인정,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시편 51:4)는 우리아와 밧세바에 대한 어떤 범죄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범죄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윗의 죄는 나단이 묘사한 대로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9절). 이 경우, 주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왕은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야 했고, 왕의 율법에 있는 이 지시와 법령(신명기 17:19)의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써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참된 언약의 왕은 법 위에 있지 않았고, 자신에게 법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법을 존중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 대한 보다 완전한 설명은 시편 51편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다윗은 주님께 자비를 베푸시고 그의 죄의 얼룩을 지워 주시고, 그의 죄책에서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그의 죄에서 정결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시편 51:1-2). 그런 다음 그는 주님께 자신을 그의 면전에서 쫓아내지 말고, 그의 성령을 그에게서 거두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시편 51:11). 이 후자의 요청의 문구는 다윗이 이러한 일들이 주께서 사울에게 행하신 일과 똑같다는 것을 예리하게 알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사무엘상 16:1과 14에서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주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청원은 사울의 집과 달리 그의 왕조가 버려지지 않고 사무엘하 7장의 약속에 따라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신 것에 대한 나단의 대답인 ”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고 당신은 이 죄로 인해 죽지 않을 것입니다.”는 다윗의 회개 정신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은혜로운 언약적 약속에 더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불안하면서도 안심이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주변 사람들의 눈에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여전히 타락한 피조물이며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불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성경의 가장 생생한 상기시켜 주는 것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보다 주님을 신뢰하라고 권고합니다. 시편 118:8 -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것이 낫다.” 시편 146:3 - “방백들을 신뢰하지 말고 구원할 수 없는 멸시받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라.” 인간은 항상 실망시킬 것이지만, 주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의 영웅 중 누구도 죄 없는 정도로 묘사되지 않았으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경건한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에 반하여, 이 이야기는 또한 다윗의 삶에 은혜롭게 개입하여 그의 죄를 직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롭게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약속의 혈통을 이어갈 또 다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서 너무나 완벽하게 드러난 인간의 죄악이라는 불안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은혜의 확신으로 가득 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시험 계명을 어긴 후에 그들을 쫓아가 그들의 죄를 직면하셨던 것처럼, 이 경우에도 주님은 다윗이 자신의 악행이 신의 감시에서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가신 것이 그들의 사전 회개에 따른 조건이 아니었던 것처럼, 다윗의 경우에도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로부터 면제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어 그를 대면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데이비스 박사는 “야훼는 죄의 죄책감을 용서하지만 죄의 결과를 가한다. 그는 죄의 더러움을 정화하지만 그 징계를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다윗의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집을 보존하겠다는 약속에 충실히 보여 주셨고, 다윗이 나중에 선언했듯이, 주님은 계속해서 그의 “은신처”(시편 32:7)가 되셨고, 그의 삶의 경험에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둘러싼 분이셨습니다.

사무엘 하 2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다윗의 노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노래가 적절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라는 제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1절로 된 이 놀라운 노래는 사무엘 상하의 중심 주제 중 일부를 신학적 관점에서 제시합니다. 사무엘 하 22장에서 발견되는 다른 것들 중 하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름부음받은 왕으로서 야훼를 자신과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주권자로 계속 인정한다는 강력한 확인입니다. 다윗은 29절에서 “주님은 그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독자는 이전 장인 21장에서 다윗 자신이 그의 전사들에 의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불렸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무엘 하 21:17에 있습니다. 이 두 진술을 비교해보면 다윗은 자신의 삶이 어떤 빛을 비추든 그것은 단지 반사된 빛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줄 빛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통치가 야훼의 빛을 어느 정도 반영한 정도까지만 이스라엘의 빛이었습니다. 야훼는 노래에서 “왕”이라는 용어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는 보편적인 신의 주권과 다윗의 전적인 확인과 그에 대한 신의 찬양이 지배적인 주제입니다.

사무엘상하를 연구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주님께서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그를 왕좌에서 제거하신 이유입니다(우리가 1장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사무엘 13장과 15장)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에서 큰 죄를 지은 다윗이 죄를 용서받았을 때(사무엘하 12장) 그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사무엘하 7장) .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노래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 21~27절 사무엘 22장에서 다윗은 주님께서 옳은 일을 행한 것에 대해 보상해 주셨다고 두 번이나 말합니다(21절과 25절). 21절에서 우리는 "주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를 대하셨고,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나에게 보상해 주셨습니다."라고 읽습니다. 25절에서 "주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그의 눈앞에서의 내 깨끗함에 따라 나에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또한 주님의 법을 따랐고 결코 그분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23절). 따라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었습니다"(24절). 그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신실한 자에게는 신실함을,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한 자를 나타내시지만, 악한 자에게는 적대감을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26-27절). 게다가 그는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지만 교만한 자를 낫추신다고 말합니다(28절). 이러한 진술은 다윗이 신현의 생생한 언어(8~16절)로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구출하셨는지 설명한 직후에 나옵니다. 그가 죽음의 고통으로 묘사한 그의 위기는 5~7절에 묘사되어 있고, 그다음 17~20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 몇 구절만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절에서,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멸망의 고통이 나를 덮쳤으며, 무덤의 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시선이 나를 마주쳤습니다." 17절에서, "그는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고 깊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그는 나를 강한 원수에게서, 나보다 너무 강한 원수에게서 구출하셨습니다." 등등. 죽음의 고통에서 구출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구출하신

이유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20 절에서 “그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느니라.”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이유는 그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주께서 나의 의에 따라 나를 대하셨다” (21절과 25절)라고 제가 잠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에 따라 나를 대하셨다” (NIV 번역에서는 21절). 25절 – “주께서 나의 의에 따라, 그의 눈앞에서 나의 깨끗함에 따라 나에게 상을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이유는 그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5절), 그는 충실했고 (26절), 순수했고 (27절), 교만하거나 (28절) 사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NIV에서는 27절에서 “사악하다”라고 합니다).

문맥상, 다윗은 이러한 범주를 자신과 사울을 구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듯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즉, 자신)를 구원하셨지만, 교만한 자(즉, 사울)를 굴욕시키셨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 (5~7절, 17~20절)은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2장에서 수많은 서사를 살펴봅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사무엘 . 다윗이 죄 없는 완벽함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 그는 교만하고 독선적인 선언을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는 사울과 달리 그의 삶의 일반적인 패턴이 언약의 충실히의 길을 걷는 것이 그의 마음의 소망임을 보여주었다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사울은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셨을까요? 저는 다윗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바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는 분명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주님과 선지자 사무엘 앞에 진정한 겸손과 통회로써 절하는 대신 자신의 죄악스러운 행동을 설명하고 정당화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의 이 중요한 부분이 사무엘상하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더 큰 맥락에서 볼 때, 이 책의 저자가 종종 사무엘의 결론이라고 불리는 부분(즉, 21-24장)에서 이 특정한 곳에 다윗의 노래를 배치하여 사울과 다윗 사이에 발견되는 명확한 대조에 주의를 환기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치명적인 위험에서 구해내신 것은 바로 사울에게서였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주님은 그를 거부하셨습니다. 사울과는 달리, 심각한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야훼께 충성을 다한다는 주장을 정당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이 21절과 25절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22절 등에서 주님의 길을 지킨다는 진술을 통해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의 삶은 언약에 대한 충실함으로 특징지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중요한 사실은 그의 통치와 그의 삶의 방식을 사울의 통치와 삶의 방식과 분명히 구별되는 방식으로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고 말할 때(24절), 이것은 도덕적 완전성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언약의 충실성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24절 하반절에서 자신을 죄로부터 지켰다고 말할 때, 칼빈은 "그가 사용한 동사는 단 한 번의 타락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놓고 멀어지게 하는 결함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때때로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 죄에 빠졌지만, 경건함을 따르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봉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게르트 Kwakkel 은 "나의 의에 따라: 구원의 근거로서의 올바른 행동"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시편 7, 17, 18, 26, 44편 (시편 18편은 기본적으로 사무엘하 22장과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시편의 두 가지 다른 버전이기 때문입니다)에서 Kwakkel은 신명기 18:13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흄이 없어야 한다”고 한 진술에 주의를 환기합니다. 그 히브리어 본문에서의 표현은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흄이 없다고 말했을 때 사무엘하 22:24에서 주장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콰켈은 신명기 18:13의 맥락에서 그 진술은 사람이 점술, 마법, 주술 등에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 미래에 대해 계시하실 내용을 경청함으로써 야훼에 대한 충성심을 증거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합니다. 신명기 18장의 그 구절을 기억한다면, 모세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이 주님으로부터 어디에서 말씀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런 점쟁이나 점술가에게 가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듣고 순종해야 할 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앞에서 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들이 점술, 마법, 주술에 관여하지 말고 예언자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대조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주술에 가담했고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구약성경에는 다윗이 거짓 예배에 가담한 기록이 없고,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지시와 훈계에 순종적으로 응답한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24에서 흄이 없다는 것의 뉘앙스가 신명기 18:13의 뉘앙스와 동일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콰켈이 한 것처럼 흄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야훼의 계명을 그의 삶에 대한 결정적인 지시로 받아들인 것과 관련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여전히 타당해 보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본질적으로 그 진술을 통해 주님 앞에서 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합법적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순종과 사울의 불순종과 대조되는 부차적인 문제는 다윗의 순종이 사울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확실히 그가 받은 심판을 받을 만했지만, 다윗의 순종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다윗의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거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열왕기 상에는 다윗이 순종 때문에 이 지속적인 왕조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진술이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열왕기 상 6:3, "당신은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 "그가 정직하고 진실하며 당신에게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5:4, 5 – "다윗을 위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주어 그 뒤를 이어 아들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느니라." 왜?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고 헛 사람 우리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비슷한 상황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언약에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순종과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선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창세기 22:15-18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주님께 순종할 의지를 보였고, 주님께서 개입하여 솟양을 제공하신 후에 주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네 아들, 네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번성하게 하리라. 네 자손은 원수의 성읍을 정복하리라." 그리고 이 중요한 약속은 "네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 –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창세기 26:4, 5 – 이 약속은 이삭에게 반복되었고, 거기에서 우리는 “나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읽습니다. 왜 이렇게 할 것인가? –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듣고 내 모든 요구, 명령, 규례, 지시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멈추고 궁금해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 –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이라고 말한 것 –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따라 조건이 붙었습니까?

여기서는 이러한 진술의 의미를 철저히 분석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결론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순종을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선포로 끌어올리셨습니다. 효과적인 원인 또는 공로 있는 보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확실히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을 집행하는 신이 정한 수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둘 다에서 일하셔서 자신의 선한 뜻을 원하고 행하셨으므로 그들의 순종은 그들의 삶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8:18과 19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요 땅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를 택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로 그의 자손과 권속을 인도하여 주의 길을 지켜 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은 에베소서 2:8-10의 원리와 같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음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누구든지 자랑하거니와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사 우리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순종은 약속의 상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집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구원의 목적의 도구로 선택하신 것은 그 응답의 중요성을 없애는 의미에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의 응답을 배제하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그들의 삶에서 신성한 은혜가 역사하는 데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으로서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윗이 야훼께 은총을 입은 것은 야훼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선택하신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사무엘상 13:22). 구원 역사의 전개되는 드라마에서 다윗의 위치의 수준에서, 우리는 그가 사울이나 그 이후의 다른 이스라엘 왕이 결코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참된 언약의 왕의 이상을 구현했지만, 그의 왕권은 여전히 결함이 있는 왕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경우, 그것은 평화와 정의가 충만하고 완전한 왕국을 세울 위대한 미래의 메시아적 역할의 왕권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뒤를 이은 왕위 계승자들에 의해 다윗의 실패가 배가되고 확대되자, 선지자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의로운 가지' (예레미야 23:5)로 알려질 왕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은 지혜로 통치하고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할 사람(예레미야 23:5)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이시다" (예레미야 23:6)라는 놀라운 칭호로 알려질 사람일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여기서 예상했지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은 다윗의 더 위대한 아들이 어떤 인간 통치자도 이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죄함으로써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확장할 왕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불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의 왕국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사람이 통치하기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통치하려고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율법책에 있는 요구 사항에 따라 통치를 패턴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왕으로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겼다. 그의 통치는 2에서 요약된다. 사무엘 8:15는 “모든 백성을 위해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한” 왕으로 묘사합니다. 이 구절은 다윗의 통치 전체 과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이 일반화되었지만 중요한 진술에서 내레이터는 다윗을 주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바라셨던 자질(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보여준 통치자로 묘사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왕권을 가진 사람에게 필수적인 자질을 소유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은 모세 언약의 요구 사항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18장 5절과 9절을 보면, “만약 어떤 의인이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고,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율법을 충실히 지킨다면, 그 사람은 정의롭고 반드시 살 것이다. 주권자이신 주님의 선언이다.” 이사야는 미래의 위대한 메시아 왕에 대해 “다윗 가문의 그루터기에서 나올 짹” (이사야 1:11) “가난한 자를 공의로,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공의롭고 옳은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레미야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의로운 가지는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는 왕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지혜롭게 다스리고 땅에서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할 왕을 세우리라.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것이 그의 이름이라 불릴 것이다. 우리의 의의 여호와.” 사실 그는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특징짓는 바로 그 특성이며, 이에 대해 말하는 많은 본문이 있습니다. 시편 89:14과 97:2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로서 의와 공의에 대해 말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통치가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한 것으로 특징지어진다는 이 간결하지만 포괄적인 진술(사무엘하 8:15)에서, 그의 삶과 관련된 타락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특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언약의 왕이라는 이상을 진정으로, 비록 불완전하지만, 대표했습니다.

에스칼리 온 키즈는 열왕기 상하에서 다윗의 의로운 행동을 말하는 수많은 언급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기록에서 여호와의 눈에 옳은 일을 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야훼의 법궤와 계명을 지켰고, 마음이 정직하고, 의롭고, 충실하고, 야훼에게 온전히 진실했고, 온 마음을 다해 야훼를 따랐고, 마음을 정직하게 걸었고, 야훼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윗의 통치를 특징짓는 것이며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권 수립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권 수립은 앞으로 올 더 위대한 것, 즉 메시아, 온 땅의 왕을 가리키고 이를 위한 조직적 장치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왕권과 메시아적 기대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의 전개에서 중심적인 것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무엘 상하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McPheeeters , Grace Northgraves , Shakia Artson  
이 필사했습니다 . Faith Bartl , Faith Gerdes , Lindsey Van Doren  
편집 Ted Hildebrandt 편집